



벌채

나무를 수확함 심화탐구

#들어는봤니 #친환경벌채 #무조건_나쁜건_아님



산림청



왜 벌채가 필요할까요?



#나무 자원은 선순환이 가능

나무 자원은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재생자원이며 잘 자란 나무를 베어 사용하고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으면 30년, 50년 후에는 다시 목재가 되어 돌아오는 **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유지**할 수 있음

* 대부분의 벌채는 목재생산림에서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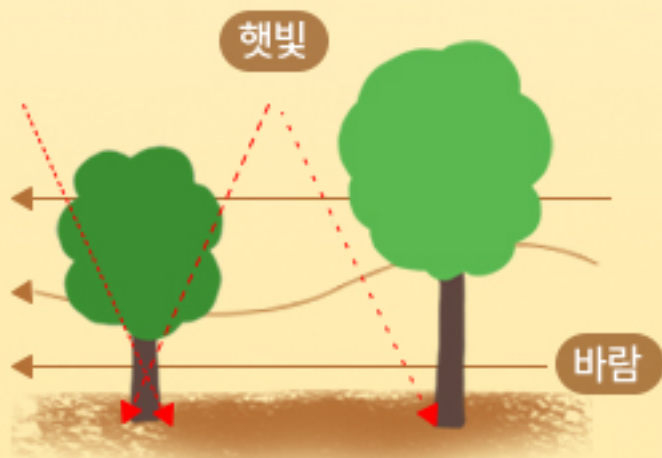


친환경 벌채란 무엇일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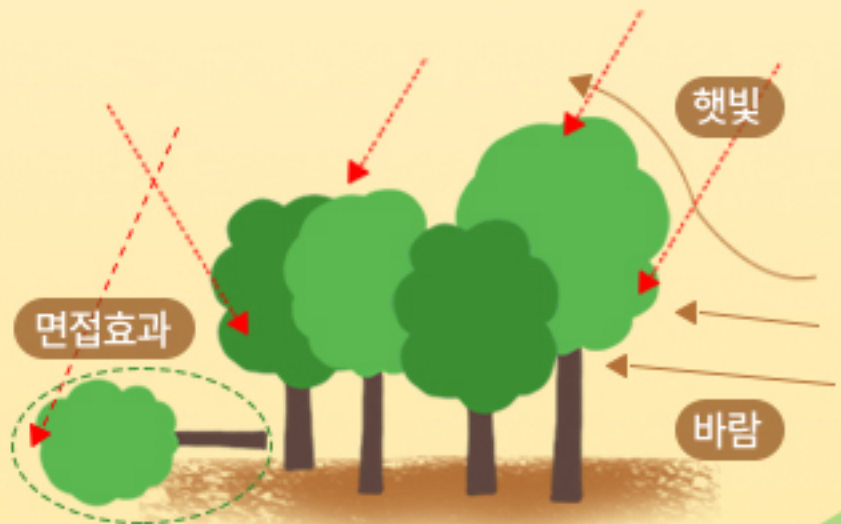
다 자란 나무는 수확할때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생태계와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
일정규모 이상의 나무를 남겨 놓는 방법

* 벌채지 내 10% 이상을 원형 및 정방형의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야 한다.

단목으로 존치할 경우 **산림의 생물·비생물적 환경이 열악해 지기 때문에** 현재는 **산림영향권을 고려한 군상잔존벌채**로 친환경 벌채의 개념이 전환됨



단목존치



군상잔존



산림영향권이란?



나무를 베어 낸 곳에 생기는 여러 부정적인 환경을 주변의 숲이 지닌 긍정적인 효과로 상쇄할 수 있는 범위
(주로 주변 숲의 상층에 있는 나무의 평균 키 만큼의 거리)

산림영향권 안에서는 종 보호에 필요한 환경을 유지하여 여러 생물체들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게 됨
나무가 집단으로 있을 때 효과가 크며, **벌채면적의 50% 이상**이 산림영향권에 포함될 때 효과가 있음



* 산림청에서는 매년, 친환경벌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



산림영향권을 고려한 친환경 벌채를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?



생물다양성 유지

벌채로 인한 개체 수의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전체 서식지의 연결성을
강화해서 생태적 보호구역을 만들어 종 수를 지킬 수 있음



경관적 가치

숲의 전체 면적과 그 연결성을 강화하여
단목존치에 비해 보기가 좋음



산림영향권을 고려한 친환경 벌채를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?



#효율적 목재 생산

- 큰 바람에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고 중심부의 용재생산 비율을 증가시킴.
- 단목이 변형 성장한 불량목이 되어 조림목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음.
- 남기는 나무를 일일이 골라내거나 형질을 따질 필요가 없어지고 나무썩기를 할 때에도 방해가 되는 나무가 없어져 작업이 수월함.



**목적에 맞는 산림자원 조성으로
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을 만들겠습니다.**
감사합니다.



산림청